

“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

-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추진
- 올해 2월 9일부터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시범 운영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금)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되었다. 그간 복권판매는 '04년 대비 '25년 현재 2.2배, 복권기금도 3.5배 증가*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복권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복권판매액 : ('04) 3.5조원 → ('25) 7.7조원, 복권기금 : ('04) 0.9조원 → ('25) 3.2조원

[1] 법정배분제도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재정수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관별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 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여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②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상반기 시범운영]

한편, 올해 2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은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5천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등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 제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원경 (044-214-3430)
		담당자	사무관	문성희 (sh22moon@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금사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영 (044-214-3450)
		담당자	사무관	박준하 (joonha@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범한 (fanhan@korea.kr)
		담당자	사무관	정성관 (jsk8578@korea.kr)

